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파시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의 역사적의의는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이 없으며 조종친선의 년대기에 불멸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사심없는 혁명적지원을 주었으며 조종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역량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종 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피와 목숨으로 조종친선력사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겼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지원군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종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려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과 경의를 담아 려사릉원에 화환을 보낸다고 하시었다.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25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정중히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보내는 화환들이 정중히 진정되었다.

본사기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지난 22일 폐막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있다.

### 강국의 체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전람회

이번 국방발전전람회의 행사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소개하면서 강국의 체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전람회였다고 격찬하고있다.

국방발전전람회의 개막식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였다고 하면서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레식으로부터 군인들의 격술시범출연, 공군전투기들이 다양한 색깔의 구름띠를 만들면서 펼치는 기교비행과 초저공비행, 락하산병의 강하기교 등 경쾌감과 장엄함이 한데 어울리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채로웠다 하였다.



### 조선이 보유한 자력자강의 위력

국방발전전람회장을 꼭 채운 최신형전투기들이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력사상 첫 무기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축적하여온 국방력을 내외에 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국방발전전람회장은 그 형식과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개최하는 무기전시회들과 결코 짝지 않을 정도로 장엄하였다. 여기에 전시된 모든것이 다 조선의 힘, 조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것이 더 놀라다. 조선이 보유한 자력자강의 위력은 이 첨단무기들의 위력을 함침것보다 비할바없이 강하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전 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무기전시회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최근에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형무기체계들을 모두다 전시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세상에 없는 명연설이라고 격찬하면서 북의 주장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우리의 주장은 전쟁 그자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인류사상 최고의 명언이다. 주장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며 조선은 조국과 인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의 군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실증해준 연설이었다고 격찬하고있다.



## 불패의 형제적우의와 단결의 위력으로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싸운 3년간은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파시한 나날이었다.

중국당과 정부는 그 나라를 세우고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 수많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보내어 조국해방전쟁을 피로써 도왔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과 한전호에서 생사교락을 같이하며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공훈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평양에 우의를 담고 평안남도 회창군에는 조선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유해가 안치된 려사릉원을 잘 꾸리고 우의탑과 려사릉원을 자주 찾아 그들의 위훈을 추억하고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 이로 하여 이 땅에서 벌어진 지난 세기의 피비린 동족간의 싸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누구나 절감하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숭고한 국제적우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전승절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을 맞으며 여러차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과 우의탑을 찾으시고 화환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에도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지원군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와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종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려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을 피력하시었다.

이렇듯 두 나라의 친선과 단결, 형제적우의를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최근 조종친선은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승군평창서기와 여러차례 진행하신 상봉과 회담들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고 변함없는 친선관계로 다져진 조종 두 나라, 두 인민사이의 훌륭하고도 위대한 단결을 국제사회에 과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보내신 축전에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국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의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대결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 평등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조종친선협조관계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며 굳게 다져진 조종친선은 오늘날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동서고금 그 료를 찾아볼수 없는 특별한 관계,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조종친선은 세인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나갈것이다.

황혜영

### 시론

##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미국과 함께 강행해온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여 해마다 벌려놓는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이 한창 벌어지고있다.

여기다가 얼마전에는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호국》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울지래국》연습까지 동시에 벌어졌다.

남조선전역이 웅근 하나의 전쟁마당으로 환관 셈이다.

어찌구무없는것은 이런 불안장소들을 벌려놓고도 그 무슨 《년례적훈련》,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는 남조선군부의 파렴치한 꾀변이다.

《호국》훈련이 지난 시기

미군과 함께 강행해온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여 해마다 벌려놓는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 《호국》훈련과 《울지래국》연습들은 적용된 작전개념으로 보나, 《민관군》이 동원된 수많은 무력과 훈련내용들로 보나 명백히 북침을 노린 위협천만 한 불안장소들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런 전쟁연습들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며 조선반도정세를 침예한 대결국면에 몰아넣는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념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건재》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은 뼈속까지 체질화된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안장난질을 일삼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로

확산되고있는 대류행전염병 사태로 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민생이냐 죽든말든 전쟁의 화악대만 질게 풍기고있으니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하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군사적망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동족을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대결행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합의와 규탄만을 초래할뿐이다.

정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로 보는 조선

한금주